

청소년의 감각추구성향과 위험행동간의 관계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ce's Sensation Seeking and their Risk Behaviors

오 미 경*

Oh, Mi Kyo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 sensation-seeking and risk behavior. This study was based on Zuckerman's model which states that the higher the sensation-seeking score, the higher the risk behavior score. The subjects were 460 third year high school adolescents in Seoul. Instruments were the Arnett Inventory on Sensation-Seeking and questionnaires on risk behavior as well as demographic variables. Statistical procedures were T-test, F-test, correlation, and hei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Sex was the only demographic variable related to sensation-seeking scores; there were differences in risk behavior score by father's education, mother's education and father's occupation; adolescent sensation-seeking and demographic variables (father's education, mother's education, and father's occupation) influenced adolescent risk behaviors.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비행’보다도 더 포괄적인 개념이며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법적,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는 행동’으로 정의되는 위험행동은 어느 다른 연령층보다도 청소년기에 가장 많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최근 선진각국을 비롯하여 지구촌 곳곳에서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청소년의 위험행동으로는, 흡연, 음주, 성행동을 비롯하여 심각하게는 오토바이폭주, 음주운전, 불법약물사용등의 다양한 양식으로 위험행동들이 만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청소년 위험행동은 매년 양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을 뿐만아니라 질적으로도 그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연소화하

*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박사과정

고 있어 커다란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대해서는 심리학, 사회학, 법학, 생물학 및 기타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탐구되어왔으며 나라와 분야와 학자에 따라서 그 초점을 달리하면서 다양한 이론들이 발표되어왔다. 청소년비행을 다루고 있는 기존의 이론은 개인의 유전적 생물학적 측면을 강조하는 생물학적 이론과 특수한 인성이 비행이나 위험행동과 관련있다고 보는 심리학적 이론, 그리고 거시적 관점에서 사회구조와 통제를 바탕으로 한 사회학적 이론으로 구분지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의 이론을 개괄해 보면,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심리학적 이론보다는 부모의 양육태도나 가정환경요인 및 사회적 요인등 환경적 요인에 대한 이론들이 주종을 이루어왔다.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청소년의 비행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는가하면(Shaw and Mckay, 1975),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한다(Tittle and Villemes, 1977). 더욱이 지금까지의 연구경향에서는 여러 종류의 비행 및 위험행동에 깔려 있는 공통요인을 알아내려는 시도는 드물며, 왜 위험행동이 특히 청소년기에 우세한지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

환경적 요인을 강조해온 지금까지의 경향과는 달리, 최근 약 30년동안에 서구에서는 생물학적 특성으로 간주되는 감각추구성향(sensation seeking)이 청소년의 비행 및 위험행동을 설명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어 기존의 연구들에 보다 새로운 시각을 조명해주고 있다.

생물학적 측면을 강조하는 Zuckerman(1979)은 자신이 개발한 용어인 감각추구성향(sensation seeking)이 부분적으로 위험행동을 설명하며 왜 청소년기에 특히 위험행동이 더 많이 나타나는지를 설명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에 따르

면, 감각추구성향이 높은 사람은 감각추구성향이 낮은 사람보다 신기한 감각을 즐기기 위하여 기꺼이 위험행동에 참여한다고 한다. 이 분야의 연구는 비교적 일관성을 보여서 감각추구성향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좀 더 위험행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서구에서는 감각추구성향과 위험행동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사회인구학적 변인이나 사회화에 초점을 맞추어온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형편이어서 청소년의 위험행동을 이해하는데 있어 불일치한 결과를 나타내거나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감각추구성향과 위험행동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감각추구성향과 위험행동간의 관계를 탐색하고, 감각추구성향과 사회인구학적 변인과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한다.

2. 연구문제

위의 연구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인구학적 변인(성, 아버지 교육정도, 어머니 교육정도, 아버지 직업, 어머니 직업)에 따라 청소년의 감각추구성향 및 위험행동은 차이가 있는가?

2) 감각추구성향과 청소년의 위험행동은 관련이 있는가?

3) 감각추구성향과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청소년의 위험행동을 설명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II. 이론적 배경

1. 감각추구성향의 개념 및 그 생물학적 근거

감각추구성향은 1960년대초에 Zuckerman에 의해 처음 사용된 용어로서, 신기하고 강한 경험을 추구하려는 성향으로 정의된다(Arnett, 1994). 즉, 감각추구성향이 높은 사람은 보다 신기한 감각과 강도가 높은 수준의 경험에서 오는 즐거움을 느끼는 한편, 감각추구성향이 낮은 사람은 그런 종류의 경험이 혐오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여행을 할 때, 감각추구성향이 낮은 사람들은 보통의 편안한 친숙한 환경을 좋아하며 여행 계획을 세울 때도 매우 조심스럽게 그리고 예상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를 한다. 그들은 휴가를 보낼 때도 매년 같은 장소로 간다. 그러나 감각추구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색다른 장소로 여행하기를 좋아하며 미리 예약하기 보다는 여행을 하면서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충동적으로 여행스케줄을 변경해가면서 여행하기를 더 좋아한다. 이러한 개인차를 Zuckerman은 감각추구성향(sensation seeking)으로 설명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감각추구성향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밝히려는 학자들의 노력에 따라 감각추구성향은 생물학적인 요인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한 예로, Zuckerman, Eysenck, & Eysenck(1978)에 의하면, 감각추구성향은 연령 및 성과 관련이 있어서 청소년기인 16-19세에 가장 높은 경향을 보이며 그 이후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꾸준한 감소를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모든 연령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은 감각추구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수준이 연령증가에 따라 감소하며 여성보다 남성의 경우

더 높게 나타나는 성향과 일치하는 결과로 감각추구성향이 성호르몬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외부적인 자극이 증가하거나 감소함에 따라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측정치인 AEP(Average Evoked Potential)의 증가나 감소가 감각추구성향과 관련성이 있으며, 신경자극 전달부의 민감도와 관련있는 효소인 MAO(Monoamine oxidase)와 감각추구성향이 부정적으로 관련된다는 여러 연구들의 결과(Murphy, Belmaker, Buchsbaum, Wyatt, Martin, & Ciaranello, 1977; Schooler, Zahn, Murphy, & Buchsbaum, 1978)에 비추어 감각추구성향은 생물학적 근거를 갖는 것으로 본다. 즉, 감각추구성향은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특성이어서 신기한 감각을 추구하거나 강한 감각을 추구하는 정도가 각 개인마다 다르다고 보고 있다.

2. 감각추구성향의 표출과 사회·심리화적인 근거

생물학적인 근거에서 볼 때 감각추구성향에서의 높거나 낮은 개인차는 원래 타고날 때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되더라도, 감각추구성향의 개인차가 어느 정도로까지 표현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 개인이 살아가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에 따라 다르다고 본다. 즉, 개인의 타고난 감각추구성향은 그 개인이 사회화되는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에 따라 바람직한 방향으로 표현되기도 하며 또한 바람직하지 못한 반사회적인 방향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Farley(1981)는 감각추구성향은 청소년의 비행이나 창조성 모두와 관련되지만, 비행으로 나타나는지 창조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지는 각 개인마다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즉, 그는 창조적인 젊은이와 비행자 모두는 같은 생물학적인 특성에서

출발하지만 그 개인이 처한 환경이 어떠한가에 따라 감각추구성향의 표현형태는 달라진다고 하였으며, 창조적인 사람이 될것인지 혹은 비행자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요인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적하였다. 높은 사회경제적 수준의 가족은 스포츠, 자동차, 여행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식에서 감각추구성향이 표출될 수 있는 반면에, 낮은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감각추구성향의 표현은 성, 약물, 도박과 범죄로 제한된다. 결국 생의 초기의 환경적 기회는 한 개인의 감각추구성향이 표현되는 방식 즉, 감각추구성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표출되는지 혹은 반사회적인 방식으로 표출되는지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한편, 사회화이론으로 감각추구성향의 표현을 설명한 Arnett(1992a, b)은 개인이 처한 사회화 과정이 어떤 사회화과정인지에 따라 감각추구성향의 표현 방식은 달라진다고 하면서 감각추구성향의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사회화를 개인주의가 허용되고 독립성이 조장되는 개방된 사회화(broad socialization)와 통제가 엄격하고 복종과 책임이 요구되는 제한된 사회화(narrow socialization)의 두개 범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개인주의와 독립성이 보장되는 개방된 사회화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비롯하여 지역사회가 개인에게 기대하는 복종과 책임이 비교적 덜하며 이런 사회에서는 개인이 지닌 감각추구성향이 표현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은 반면에, 제한된 사회화에서는 통제가 엄격하고 지역사회의 기준과 기대에 복종하기를 요구받게 되므로 이런 사회화에서 개인의 감각추구성향은 표출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게 되며 심지어는 억압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사회화방법도 달라지리라는 가정하에 사회화방법 자

체는 연구하지 않고 연구의 여러 가지 제한상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국한하여 연구하고자한다.

3. 감각추구성향과 위험행동간의 관계

앞서 지적하였듯이 감각추구는 신기하고 강한 경험을 추구하려는 하나의 성향이며, 위험행동 역시 대부분 이런 성향의 표현으로 생각된다. 사실상, 감각추구성향은 직접, 간접으로 위험행동과 관련된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위험행동의 한 범주인 운전습관과 감각추구성향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Zuckerman과 Neeb(1980)은 피험자들에게 시간당 보통 55마일이 제한속도인 도로에서 그들이 얼마의 속도로 운전하는지를 물었는데 그들이 보고한 운전속도와 감각추구성향척도(Sensation Seeking Scale; SSS)의 점수간에 유의한 긍정적인 관계가 있어 감각추구성향이 높을 수록 운전속도를 초과하는 정도는 높았다. 또한, 이러한 관계는 연령에 관계 없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 외에도 운전과 감각추구성향간의 관계를 연구한 많은 문헌들은 높은 감각추구성향 운전자는 낮은 감각추구성향 운전자보다 운전사고를 좀 더 많이 내며 운전법규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음주운전 사고를 더 자주 낸다고 보고하고 있다(Zuckerman, 1994).

도박행위와 감각추구성향간의 관계를 연구한 Zuckerman(1974)은 학생들에게 가장 높은 상금을 가진 사람과 상품을 경쟁하는 가설적 게임에서 '내기'를 하게 했는데, 그들은 그들 자신의 돈으로 도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부족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각추구성향척도와 내기의 크기 및 내기의 양간에 상관관계를 발견하였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른 실험연구(Waters & Kirk, 1968)에서도, 높은 감각추구

성향점수를 가진 학생들은 낮은 감각추구성향자들보다 손실의 위험이 더 큰 내기를 선택하였다.

또한, 범죄와 감각추구성향간의 관계를 연구한 Horvath과 Zuckerman(1993)연구에서, SSS전체점수는 비록 심각한 범죄는 아닐지라도 대학생들에 있어서 실제적인 범죄행동의 보고와 높게($r = .53$)관련되었다.

이와같은 연구들 이외에도 감각추구성향은 알콜사용(Zuckerman, Bone, Neary, Mangreldorff, & Brustman, 1972)과 관련됨이 보여지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피임없는 성관계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Arnett, 1990b) 그리고 다양한 성격형(Zuckerman 등, 1972; Zuckerman, Tushup & Fenner, 1976)과도 관련되었다. Satiner와 Black(1984)은 감각추구성향이 마리화나 및 LSD사용과 SSS의 모든 하위척도와 전체점수에서 상관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감각추구성향과 위험행동간의 관계를 보고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연령에 관계없이 남성여성 모두에게 감각추구성향과 여러 종류의 위험행동과의 관계를 시사하고 있다.

4.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위험행동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위험행동간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를 고찰해볼 때, 성과 연령에 따른 비행 및 위험행동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에서는 비교적 일관된 결과를 보여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더 많은 비행 및 위험행동을 하며 다른 연령층보다 청소년기에 위험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되는 반면에, 사회계층과 청소년비행 및 위험행동간의 관계를 다룬 경험적 연구들은 일관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한 예로, Tittle과 Villemez(1977)는 그들의 논문에서 49개 연구의 결과를 검토한 후에 24개 연구가 사회경제적 지위와 비

행이 부적인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고, 19개 연구는 관계가 없음을, 그리고 6개 연구는 부분적인 부적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Braithwaite(1981)는 자기보고식 청소년 비행과 사회계층간의 관계를 조사한 47개의 문헌을 검토하였는데, 18개 연구가 하층계층의 청소년들이 다른 계급의 청소년들보다 더 높은 비행율을 나타내었고, 22개연구는 계층과 청소년비행간에 관계가 없었음을 밝히고 있으며, 7개의 연구는 남·여 또는 비행의 유형에 따라 관계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와 같이 연구들간에 일관성을 보이지 못한 이유로, 표집과정이나 척도구성상의 문제도 생각할 수 있지만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학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사회계층에만 초점을 두고 연구한 결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생물학적 요인과 위험행동간의 관계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영향에 관한 연구가 드물고 생물학적 요인과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에 대한 연구도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감각추구성향을 생물학적 요인으로 보고, 위험행동과 감각추구성향간의 관계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영향력과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에 거주하는 460명의 고등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여학생이 150명(39%)이며 남학생은 235(61%)이다. 연구목적에 적합하도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골고루 분포된 지역을 표집하도록 하였으며,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변 수	구 분	빈 도
성 별	남	235(61.0)
	여	150(39.0)
아버지 교육수준	중졸이하	88(23.2)
	고졸	141(37.1)
	대졸이상	151(39.7)
어머니 교육수준	중졸이하	127(33.3)
	고졸	175(45.9)
	대졸이상	79(20.7)
아버지 직업	생산기능직	86(24.0)
	판매서비스직	106(29.6)
	사무관리직	133(37.2)
	전문직	33(9.2)
어머니 직업유무	비취업	236(63.1)
	취업	138(36.9)

2. 측정도구

연구문제를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 질문지를 사용하였는데, 질문지의 내용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묻는 5문항과 감각추구성향을 측정하기 위한 감각추구성향 척도(16문항), 그리고 위험행동에의 참여정도를 묻는 위험행동척도(17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두 척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감각추구성향(sensation seeking)척도

본 연구에서는 Arnett(1994)의 척도를 기본적으로 사용하였고 우리문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몇개문항을 수정하여 모두 16문항으로 구성된다. 문항의 내용은 '만약 내가 유원지에 간다면, 청룡열차나 혹은 속도가 빠른 것을 타기를 좋아한다', '나는 익숙한 곳보다는 낯선 곳이나 멀

리 떨어진 곳을 여행하기를 좋아한다', '나는 알려지지 않은 대륙의 첫번째 탐험가가 되고 싶다', '나는 폭파장면과 추적 장면이 많은 영화를 좋아한다'와 같이 신기하고 강한 감각을 추구하려는 욕구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된다. 감각추구성향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아주 그렇다'의 4점 Likert척도이며 점수가 높을 수록 감각추구성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감각추구성향척도의 신뢰도는 내적 일치도에 의한 Cronbach의 α 계수 .71로 비교적 신뢰로운 수준이었다.

2) 위험행동(risk behavior)척도

외국의 경우, 청소년의 위험행동과 관련된 연구에서 사용되어온 위험행동 항목들은 대부분 운전습관(제한속도 이상의 속도로 운전하기, 술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기, 추월금지 구역에서 추월하기, 앞차와 가까운 거리로 운전하기), 성관계(피임없이 성관계, 모르는 사람과 성관계), 불법약물사용(마리화나 사용, 코카인 사용, 헤로인 사용), 비행과 범죄(절도, 공공기물파괴)와 관련하여 연구되어왔다. 그러나 이런 항목의 위험행동들이 미국의 청소년들에게는 보편적인 항목들이지만, 우리 문화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자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위험행동'에 대한 개방형 질문지(open question)를 사용하여 학생들이 응답한 항목들을 '위험행동'척도로 사용하였으며, 모두 17개 항목(담배피우기, 술마시기 술마시고 자전거타기, 술마시고 오토바이타기, 오토바이타고 질주하기, 무면허 오토바이타기, 과속으로 자동차 운전하기, 술마시고 자동차 운전하기, 부탄가스. 본드흡입, 성관계, 수업시간 빼먹기, 컨닝하기, 공공기물파괴, 유흥업소. 유흥가 출입, 외박, 돈내기 고스톱, 음란비디오보기)으로 구성된다. 위험행동항목에 대해 지난 1년동안 몇번이

나 해 본적이 있는가에 대해 물었으며, 해본 적 없다(1점), 1-2번(2점), 3-4번(3점), 5-6번(4점), 그 이상(5점)으로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위험행동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1996년 5월 27일-31일 사이에 서울에 위치한 중류층에 속하는 4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교사에게 질문지에 대한 내용과 질문지응답 요령을 충분히 설명한 후 학생들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하게 하였으며 총 398부 중 응답이 부실한 13부를 제외하고 총 385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4. 분석방법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감각추구성향 및 위험행동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F*검증과 *t*검증을 사용하였으며, 감각추구성향과 위험행동간의 관계는 피어슨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감각추구성향과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위험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연구문제별로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감각추구성향 및 위험행동의 차이

<표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감각추구성향 정도의 차이

변 인	집 단	N	M	SD	F값
성 별	남	226	2.62	.40	4.71***
	여	145	2.42	.43	
아버지 교육수준	중졸이하	85	2.52	.39	.26
	고졸	135	2.56	.44	
	대졸이상	146	2.55	.42	
어머니 교육수준	중졸이하	123	2.52	.41	.95
	고졸	169	2.58	.44	
	대졸이상	75	2.52	.40	
아버지 직업	기능직	82	2.57	.41	.46
	판매서비스직	105	2.54	.42	
	사무직	128	2.50	.42	
	관리, 전문직	31	2.54	.42	
어머니 직업유무	유	225	2.55	.41	.06
	무	135	2.54	.44	

****p*<.00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감각추구성향정도의 차이를 나타낸 <표 2>를 보면, 성별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남성은 여성보다 더 높은 감각추구성향을 보인다는 여러 선행연구들과 일치된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감각추구성향이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Zuckerman,1980)와 달리,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감각추구성향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아버지의 직업종류와 어머니의 직업유무

에 따라 감각추구성향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아버지 직업의 종류에 따른 감각추구성향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어머니의 직업의 종류에서는 차이를 나타낸 Zuckerman (1980)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종합해보면, 성별을 제외한 어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서도 감각추구성향의 차이를 보이지 않은 본 연구는 감각추구성향이 생물학적 특성을 갖는 것이라는 Zuckerman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위험행동의 차이

변 인	집 단	N	M	SD	F값	Duncan
성 별	남	213	2.00	.80	6.79***	
	여	145	1.51	.56		
아버지 교육수준	중졸이하	80	1.78	.70	4.69**	2.3
	고졸	129	1.96	.79		
	대졸이상	145	1.69	.74		
어머니 교육수준	중졸이하	114	1.88	.79	2.95*	1.3, 2.3
	고졸	163	1.84	.77		
	대졸이상	78	1.63	.65		
아버지 직업	기능직	78	1.99	.87	2.76*	1.2, 1.3
	판매서비스직	97	1.75	.67		
	사무직	126	1.69	.70		
	관리, 전문직	31	1.79	.71		
어머니 직업유무	무	223	1.81	.78	.11	
	유	124	1.82	.73		

* $p < .05$ ** $p < .01$ *** $p < .001$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별, 아버지 교육수준, 어머니 교육수준, 아버지의 직업종류등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위험행동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더 많이 위험행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력을

가진 아버지를 둔 청소년들이 대학을 졸업한 학력을 가진 아버지를 둔 청소년보다 유의하게 위험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위험행동은 유의한 차이가 있어,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를 둔 청

소년이 중·고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를 둔 청소년보다 낮은 점수를 보여,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위험행동에 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기능직 아버지를 둔 청소년들이 다른 집단보다 위험행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성별이외에 특히 위험행동에서 차이를 나타낸 사회인구학적 변인 즉, 아버지 교육수준, 어머니 교육수준, 아버지 직업종류 변인은 사회경제적 지표를 구성하는 중요한 변인으로서 이러한 변인들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본 연구 결과로 판단하건대 사회계층적 요인이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다.

2. 감각추구성향과 위험행동간의 상관관계

감각추구성향과 위험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남녀전체가 .42($p < .001$)로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이며, 남성은 .40($p < .001$), 여성은 .32($p < .001$)로 여성보다 남성의 경우 높은 상관을 나타내, 감각추구성향이 높을수록 위험행동에 많이 참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결과는 다른 선행연구들(Zuckerman and Neeb, 1980; Horvath and Zuckerman, 1993)과 일치된 결과이며, 서구의 감각추구성향개념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위험행동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3. 감각추구성향과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위험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감각추구성향과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위험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회귀분석의 기초가 되는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있다.

<표 4> 각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평균 및 표준편차

	1	2	3	4	5	6
1. 성	1					
2. 감각추구성향	-.24***	1				
3. 아버지 직업	.03	-.05	1			
4. 어머니 직업유무	-.04	-.00	-.17**	1		
5. 아버지 교육수준	-.01	.02	.60***	-.09*	1	
6. 어머니 교육수준	.01	.01	.52***	-.03	.71***	1
7. 위험행동	-.32***	.42***	-.12*	.01	-.07	-.12*
평균	1.39	2.56	2.32	1.37	2.17	1.87
표준편차	.49	.42	.94	.48	.78	.73

* $p < .05$ ** $p < .01$ *** $p < .001$

표에서 보듯이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어머니의 교육수준의 상관인 .71이고,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아버지의 직업은 .60으로 높은 상관이나 나타나 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의심되었다. 따라서 아버지의 교육수준변인을 제거한 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표 4>에서 보듯이, 성과 감각추구성향간에 상관($r=.24, p<.001$)이 있어 성을 통제후에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대해 감각추구성향과 사회인구학적 제 변인이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전체연구대상자에 대해 위계적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1단계에서 성별의 영향력을 알아보고 2단계에서는 성별의 영향력을 통제한 감각추구성향의 영향력의 정도를, 그리고 3단계에서는 성과 감각추구성향의 영향력을 통제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독립변인들(성, 감각추구성향,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청소년의 위험행동을 약 22% 설명하고 있다. 이 중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감각추구성향($\beta=.32$)변인으로 청소년의 위험행동의 11%를 설명하였으며, 성별($\beta=.24$)이 10%를, 그리고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1%를 설명하였다.

<표 5>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전체)

단 계	변 인	B	β	T	R ² 변화량	R ² 누적량
1단계	성별	-.35	-.24	-4.52***	.10	.10
2단계	감각추구성향	.58	.32	6.21	.11	.21
3단계	아버지 직업	-.07	-.09	-1.53	.01	.22
	어머니 직업유무	-.10	-.06	-1.20		
	어머니 교육수준	-.05	-.05	-.92		

*** $p<.001$

이외에도 감각추구성향과 위험행동간의 상관은 여성보다 남성의 경우 더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 연구들(Russo et al., 1991; Giambra, Camp & Grodsky, 1992)에 근거하여, 남학생과 여학생집단 각각을 대상으로 위험행동에 대한 제변인들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6>과 <표 7>에서, 감각추구성향과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청소년의 위험행동을 설명하는 변량은 남성의 경우 17%를, 여성의 경우 11%를 설명하고 있어 감각추구성향과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남성의 위험행동을 더 많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각추구성향의 설명력은 남성의 경우 위험행동의 14%를, 여성의 경우 10%를 설명해 여러 선행연구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남성의 감각추구성향이 여성의 감각추구성향보다 위험행동을 훨씬 더 많이 설명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설명력은 남성 위험행동의 3%를, 여성 위험행동의 1%를 설명해 인구학적변인 역시 남성의 위험행동을 더 많이 설명하는 요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감각추구성향이나 인구학적 변인은 여성보다는 남성의 위험행동을 보다 잘 설명하며 여성의 위험행동은 이들 변인 이외의 다른 중요한 변인이 개입될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표 6> 남고생의 위험행동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단 계	변 인	B	β	T	R ² 변화량	R ² 누적량
1단계	감각추구성향	.76	.36	5.37***	.14	.14
2단계	아버지 직업	-.10	-.12	-1.50	.03	.17
	어머니 직업유무	-.16	-.10	-1.41		
	어머니 교육수준	-.09	-.08	-1.04		

*** $p < .001$

<표 7> 여고생의 위험행동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단 계	변 인	B	β	T	R ² 변화량	R ² 누적량
1단계	감각추구성향	.36	.30	3.52***	.10	.10
2단계	아버지 직업	-.04	-.07	-.71	.01	.11
	어머니 직업유무	-.00	-.00	.03		
	어머니 교육수준	-.00	-.00	-.04		

*** $p < .0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감각추구성향과 위험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감각추구성향과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위험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감각추구성향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 성별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직업을 제외한 다른 모든 변인, 즉 성별, 아버지 교육수준, 어머니 교육수준, 어머니 직업종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Zuckerman(1980)의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감각추구성향 정도의 차이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으므로 직접적이고 보다 포괄적인 비교가 불가능하지만 Zuckerman의 연구결과와 본 연구결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

원인을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측정도구의 문제인데, Zuckerman의 연구에서는 그 자신이 개발한 SSS Form V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척도로는 Arnett(1994)이 개발한 AISS(Arnett Inventory of Sensation Seeking)를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Zuckerman의 연구에서 사용한 SSS Form V의 문항내용에는 마약, 성경험, 음주, 약물사용 즉, 사회경제적 지위와 다소 관련되는 문항들이 포함되어있다. 그러나 감각추구는 하나의 성향이며 잠재성이기 때문에 잠재된 감각추구성향이 반사회적 행동에서 표현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특성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고 본 Arnett는 그 척도를 구성하는 내용에 규준을 깨뜨리는 행동문항이나 반사회적 행동문항(마약, 성, 음주, 약물)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심리학잡지인 <Psychology Today>를 구독하고 있는 독자를 대상으로 한 Zuckerman의 연구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는 교

육수준이나 직업 또는 인지적 수준 등에서 서로 이질적인 집단으로 생각되며 이로 인한 결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성은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요소이며, 차이를 보이지 않은 다른 변인 즉, 부모의 직업이나 부모의 교육정도와 같은 요인들은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요소이기 때문에 감각추구성향을 생물학적인 요소로 볼 때, Arnett의 척도를 사용한 본 연구가 SSS Form V를 사용한 Zuckerman의 연구보다 타당성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 하나로만 일반화할 수 없는 것이며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감각추구성향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위험행동의 차이에서 성별, 아버지 교육수준, 어머니 교육수준, 아버지 직업종류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여성보다 남성이 위험행동을 더 많이 하며,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위험행동을 덜 하며, 아버지의 직업이 판매, 서비스직과 사무직보다는 기능직일 경우에 위험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교육수준, 어머니 교육수준, 아버지 직업종류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환경적 요인이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로 Zuckerman의 주장을 들 수 있다. 즉, Zuckerman은 최근의 저서(1994)에서 기존의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켜 개인이 태어난 사회경제적 환경은 가능한 감각추구성향의 표현 범위를 결정한다고 하였다. 종류 혹은 상류환경에서는 스포츠, 자동차 그리고 여행과 같이 감각추구성향의

표현가능한 범위가 큰 반면에, 하류층의 사회에서는 성, 약물, 도박과 범죄로 제한된다. 한 개인은 그가 성장한 문화의 전형적인 문화에서 감각추구성향의 표현방식을 배우게 되는데, 이렇게 볼 때 감각추구성향의 높고 낮음도 중요하지만 그런 성향이 표현되는 환경적 영향도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다.

(2) 감각추구성향과 위험행동은 비교적 높은 상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보다 남성의 경우에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 즉, 감각추구성향이 높을 수록 위험행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남학생의 경우 더 두드러졌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서구에서만 연구되어왔던 감각추구성향과 위험행동과의 관계가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도 일반화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감각추구성향이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보다 더 높고 감각추구성향과 위험행동간의 관계도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경우 더 높은 것으로 보아, 감각추구성향이 생물학적 특성임을 지지하는 결과로 보여진다. 즉, 남성이 여성보다 생물학적으로 테스트스테론수준이 더 높고, AEP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MAO수준이 더 낮기 때문에 생물학적 요인으로 가정되는 감각추구성향에서도 남성이 더 높은 수준을 보이며, 위험행동과 더 강하게 관련된다고 보여진다.

(3) 감각추구성향과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청소년들의 위험행동을 설명하는 정도는 전체변량 22% 중에서 감각추구성향이 11%를,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1%를 설명해, 감각추구성향이 청소년의 위험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성의 영향력은 전체변량의 10%를 설명하였는데 성과 감각추구성향을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요인으로 볼 때 생물학적 요인이 전체변량의 21%를 설명하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결

과는 지금까지 비행을 가정환경이나 부모양육태도와 같은 환경적 영향만을 강조해온 연구와는 다른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결과이며, 아동의 타고난 특성의 중요성을 증명해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성별에 따라 감각추구성향과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영향력을 따로 분석해본 결과, 남성의 경우가 두개의 변인이 청소년 위험행동의 17%를 설명하였으며, 이중 감각추구성향이 14%를,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3%를 설명하였다. 여성의 경우는 이 두개의 변인이 청소년 위험행동의 11%를 설명하였으며, 이 중 감각추구성향이 10%를,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1%를 설명하였다. 남녀 모두 인구학적 변인보다는 감각추구성향이 위험행동을 훨씬 더 많이 설명하였다. 이는 남녀 모두에 있어서 감각추구성향이 위험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사실과 함께 감각추구성향의 정도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은 다르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남성은 감각추구성향과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의해 위험행동의 17%를 설명할 수 있는 반면에 여성의 경우는 감각추구성향과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위험행동의 11%만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위험행동은 감각추구성향과 사회인구학적 변인이외의 어떤 다른 중요한 변인의 개입을 예측할 수 있다.

중요한 예측 변인으로 사회화의 영향력을 생각할 수 있는데, 남성과 여성은 사회화 과정에서 다르게 취급받아서 남성의 감각추구성향이 위험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문화적으로 승인될 수 있는 반면에 여성의 감각추구성향이 위험행동으로 표현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문화적으로 불승인되며, 금지당하거나 또는 억압되는 사회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타고난 여성의 감각추구성향이 사회문화적으로 승인되는 방향으로 표현되거나 혹은 억압되어질 수 있다고 본다. 즉,

남성과 여성의 감각추구성향은 사회화 과정에서 다르게 표현되도록 사회화될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위험행동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감각추구성향뿐 아니라 사회화의 역할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로, 생물학적 요소로 간주되는 감각추구성향은 청소년의 위험행동과 관련되며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사회인구학적 변인보다 더욱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위험행동이나 비행을 가정환경적 요인이나 부모의 양육태도와 연결지어온 지금까지의 연구에 다른 시각을 제시하는 결과이며, 이런 결과가 부모들이 아동을 양육하는데 있어서 어떤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아동의 타고난 특성을 존중하여 감각추구성향이 극단적으로 높은 아동은 그런 특성을 처벌하기보다는 위험요소를 최소화한 환경 속에서 보다 건전한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Arnett, J. (1990a). Drunk driving, sensation seeking, and egocentrism among adolesc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1*, 541-546.
- Arnett, J. (1990b). Contraceptive use, sensation seeking and adolescent egocentrism.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9*, 171-180.
- Arnett, J. (1992a). Reckless behavior in adolescence: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Review, 12*, 339-373.
- Arnett, J. (1992b). Socialization and

- adolescent reckless behavior: A reply to Jessor, *Developmental Review*, 12, 391-409.
- Arnett, J. (1994). Sensation seeking: A new conceptualization and a new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 289-296.
- Braithwaite, John, (1981). The myth of social class & criminality reconsidered. *A. S. R.*, 46, 36-57.
- Farley, F. H. (1981). Basic process individual differences: A biologically based theory of individualization for cognitive, affective, and creative outcomes. in F. H. Farley & N. J. Gordon (Eds.), *Psychology and education: The state of the union*. Berkeley, CA: McCutcheon Publishing.
- Giambra, L. M., Camp, C. J., & Grodsky, A. (1992). Curiosity and stimulation seeking across the adult life span: Cross-sectional and seven-year longitudinal findings. *Psychology and Aging*, 7, 150-157.
- Horvath, P., & Zuckerman, M. (1993). Sensation seeking, risk appraisal, and risky behavio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 41-52.
- Murphy, D. L., Belmaker, R. H., Buchsbaum, M. S., Martin, N. F., Ciaranello, R., & Wyatt, R. J. (1977). Biogenic amine related enzymes and personality variations in normals. *Psychological Medicine*, 7, 149-157.
- Russo, M. F., Lakey, B. B., Christ, M. A. G., Frick, P. J., McBurnett, K., Walker, J. L., Loeber, R., Stouthamer-Loeber, M., & Green, S. (1991). Preliminary development of a sensation seeking scale for childre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 399-405.
- Schooler, C., Zahn, T. P., Murphy, D. L., & Buchsbaum, M. S. (1978). Psychological correlates of monoamine oxidase activity in normals.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66, 177-186.
- Shaw, C. R. & H. D. McKay, (1975). Differential systems of values. in R. A. Farrel & V. L. Swigert, (ed), *Social Deviance*, J. B. Lippincott Company.
- Title, C. R. & W. J. Vellemez (1977). Social class & criminality. *Social Forces*, Vol. 56, 474-502.
- Waters, L. K., & Kirk, W. E. (1968). Stimulus seeking motivation and risk-taking behavior in a gambling situation. *Education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28, 549-55.
- Zuckerman, M. (1979a). *Sensation seeking: Beyond the optimal level of arousal*. Hillsdale, NJ: Erlbaum.
- Zuckerman, M., Bone, R. N., Neary, R., Mangelsdorf, D., & Brustman, B. (1972). What is the sensation seeker? Personality trait and experience correlates of the Sensation Seeking Sca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9, 308-321.

Zuckerman, M., Eysenck, S. B. G., & Eysenck, H. J. (1978). Sensation seeking in England and America: Cross-cultural, age, and sex comparis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 139-149.

Zuckerman, M., & Neeb, M. (1980). Demographic influences in sensation seek-

ing and expressions of sensation seeking in religion, smoking, and driving habi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 197-206.

Zuckerman, M. (1994). *Behavioral expressions and biosocial bases of sensation seeking*. N. Y.:Cambridge university press.